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연장 촉구결의안

| | |
|----|--|
| 의안 | |
| 번호 | |

발의년월일 : 1996. 9. 20

제안자 : 조영길 의원 외 인

주 문

- 화순 ~ 광주간 도로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고 광주광역시의 인근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 불때
- 다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주 지하철 1호선 운행구간을 화순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8만 군민의 여망이 담긴 별첨 결의문을 채택 각계에 건의하는 등 군민과 더불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 우리군은 화순 ~ 광주간 국도4차선 확장이후에도 심한 교통체증을 안고 있고 광주시민의 배드타운이자 위성도시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광주시와의 연계 개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 단순히 재정적 부담만을 근거로 하는 근시안적인 광주지하철 1호선 노선 결정으로 장래 화순지역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 건설 초기단계인 지금 광주 도시지하철 1호선 운행구간을 화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범 군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본건을 제안함.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연장 촉구결의문

우리 화순군의회는 2천년대 광주광역권 교통의 대동맥이 될 광주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의 착공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통한 지역발전의 촉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지하철 1호선 노선을 동구 용산동에서 광산구 옥동까지 20.1km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광주권 주변의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화순군 지역은 현재 광주~화순간 국도 4차선 확장 이후에도 심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음에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광주시민들의 베드타운 및 전대병원분원과 광주외국어대 설립등 위성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광주와의 연계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1호선 노선결정은 단순한 재정 부담만을 염두에 둔 근시안적인 것으로서 국토서남권의 중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도시개발 기본정신과도 정면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화순군의 인구 및 교통증가율을 감안, 광주도시 지하철 1호선 노선의 화순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건설초기 단계인 지금 화순까지의 노선연장을 위한 범 군민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것임을 천명한다.

도시지하철 사업의 주체인 광주광역시에서도 오는 2004년 완공년도에 예견되는 화순권역권의 교통대란을 더 이상 좌시하지말고 즉각적인 노선연장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전남도에서도 화순의 성장 잠재력과 위성도시적 기능, 그리고 폐광지역임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의미에서라도 광주지하철 1호선 노선의 화순연장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호소한다.

우리 화순군의회에서는 지하철 노선의 화순연장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광주

광역시, 광주지하철건설본부 등 관계당국에서 우리군민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재원부족 등 근시안적인 이유를 들어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국가행정 및 도시행정이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시한번 광주·전남의 공동발전을 위한 광주지하철 1호선 노선의 화순 연장을 건의하고 이의 성사를 위해 온군민의 힘을 모어나갈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1996. 9. 21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